

# 광주 시립예술단 '풍성한 2019'

## 8개 단체 공연 계획 발표

광주시립교향악단(시향)·오페라단·발레단·극단 등 시립예술단들이 올해도 다채로운 문화성장을 차리고 관객 맛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2일 올해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 공연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를 대표할 창작공연작과 세계적인 연주자와의 협업, 해외 고전작품의 광주 초연 등 이야기거리가 풍성하다.

올해 광주문화예술회관 성대한 무대의 서막은 시향이 연다.

시향(상임지휘자 김홍재)은 오는 24일 신년음악회 '더 로즈'에 피아니스트 안 이라체를 초청한다.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예술감독이자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이라체는 이날 무대에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8단조 작품 16'으로 호흡을 맞춘다.

오는 6월까지는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 우승을 차지한 '노부스 콰르텟'의 비올리스트 이승원과 피아니스트 유영욱, 첼리스트 임희영과의 무대가 기대되고 있다. 5-18 기념음악회에서는 황호준이 작곡한 '남을 위한 서곡'을 무대에 올리고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잇는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협연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문예회관 대극장 보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시향의 정기연주회를 전남대-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시향은 하반기부터 '베토벤 심포니 전국 연주 시리즈 I-IV'를 마련해 클래식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창단 2주년을 맞는 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근)은 광주 초연작과 2편의 브랜드 오페라를 선보이며 바쁜 한 해를 보낸다. 먼저 3월 정윤성의 오페라 '망부운'을 50여 년만에 부활시켜 무대에 올리고 이어 중국에서의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6월에는 비제의 '카르멘'을 공연하고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베르디의 '운명의 힘'의 막이 오른다. 연말에는 202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창작 오페라 시연회를 갖는다.



올해도 광주시립예술단들의 공연 소식이 풍성하다. 지난해 시립오페라단이 선보인 정윤성의 오페라 '망부운' 콘서트판 공연 모습.

### 시향, 올리비에 샤를리에·이승원·유영욱 등 협연 오페라단, 3월 '망부운'...베르디 '운명의 힘' 초연 발레단 '라 실피드'...창극단 30주년 기념 '놀보전'

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 역시 초연작을 내놓는다. 오는 4월 시립발레단은 프랑스 낭만발레 '라 실피드'를 볼쇼이발레단 안드레이 블로틴과 배우 안무가가 각색한 작품으로 선보인다. 하반기에는 한국인의 정서를 5명의 무용수의 몸짓으로 표현한 창작발레 '아리랑'이 광주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첫선을 보인다.

시립극단은 오는 4월 나상만 극단 예술감독이 극작-연출을 맡은 '달빛 결혼식'으로 관객을 만난다. 1988년 초연한 이 작품은 화합하는 영호남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1월에는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 '세 자매'를 시립극단의 색을 입혀 상연한다. 지난해 선보인 '망키열전'은 2018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공립공연단체 우수연극에 선정돼 다른 지역에

서 순회 공연을 열 예정이다. 창단 30주년을 맞는 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1989년 창단공연으로 선보인 창극 '놀보전'을 정기공연 무대에 올린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흥보가'의 내용을 담은 전통창극으로 80명이 무대에 올라 우리 소리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립합창단은 오는 3월 대구시립합창단과 '영호남교류음악회'를 열며 지역 화합의 하모니를 울린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콘서트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오는 5월 다시 관객을 찾는다. 프랑스 혁명을 노래한 '민중의 노래'와 주옥 같은 솔로곡들로 무대를 채운다. 여름부터는 7080 가요,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행렬의 '메시아' 등 다양한 장



피아니스트 안 이라체

리의 음악으로 화음을 들려준다. 오는 10월에는 지휘자 임한구의 고별무대를 앞두고 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윤영문)은 정기공연 '봄의 창문을 열어'를 3월에 열며 봄의 시작을 알린다. 9월에는 3회 광주시 소년소녀합창제에 참가하며 천사들의 무대를 선사한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1월 말로 6년 간의 임기가 끝나는 김광복 지휘자의 뒤를 이을 후임자 공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립창극단은 러시아 소치에서의 공연을 협의하고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프랑스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613-8337.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예향** 1월호

## 2019년 이끌 트렌드는 무엇?

### 초대석 '일용염니' 김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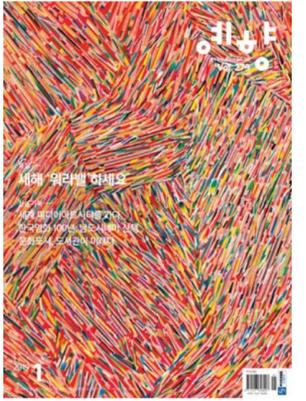
'희망'을 꿈꾸는 2019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돼지 꼬만 쥐도 기대를 걸게 되는데 올해는 무려 '황금 돼지'의 해다. 2019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한국사회를 주도할까.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황금돼지의 기운이 자기실현적 예언의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19년 키워드로 '피기 드림'(PIGGYDREAM-돼지꿈)을 내놓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월호가 올 트렌드를 요약했다.

신년호 특집은 "비바! 2019 워라밸"이다. 지난해 핫 키워드로 떠올랐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은 2019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에만 파묻혀서 개인 생활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고 워라밸 시대에 뜨고있는 문화관광도 떠나본다.

예향초대석에서는 대중들에게 반가운 얼굴 '일용염니' 김수미씨를 만나고 왔다. 전북 군산 출신 배우 김수미(70)는 올해 연기인생 50년을 맞았다. 드라마 '전원일기' 일용염니 역을 비롯해 TV와 영화에서 개성적인 연기를 선보여 성격 배우로 우뚝 섰다. 최근 예능 '수미네 잔'에서 요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손맛'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를 만나 연기인생과 요리 이야기를 들었다.

새해는 한국에서 영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상영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10월 27일, 서울 단성사에서 조선인이 제작한 최초의 활동사진(영화) 작품인 '의리적 구토'(감독 김도산)가 개봉됐다. 신년기획 '한국영화100년-남도, 필름속으로' 시리즈



즈를 통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화 발자취를 살펴본다.

신남도택리지 여정은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로 향한다. 샛노란 산수유꽃과 섬진강 래프팅, 가을단풍과 붉은 산수유 열매, 겨울 설경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구례는 사계절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지리산 정원과 민간 정원 쉼장, 지리산 온천랜드 등 '삼대삼미'(三大三美) 고장 구례로 떠나보자.

새롭게 시작하는 연중 기획물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는 책 읽는 서울을 이끄는 '지식문화발전소' 서울도서관으로 안내하고 '세계미디어아트시티를 가다' 첫 번째 도시 특이 칼스루헤의 ZKM(예술과 미디어 센터)도 만나본다. 이외에 문항이 숨 쉬는 문화관을 찾아 떠나는 통영 청마문화관 기행, 천재 극작가 김우진을 기리는 목포 김우진 골목길을 소개하고 '2년차 기획'을 이룬 광주FC 나상호 선수와 지난해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허지은 감독과의 인터뷰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문화공간 '김넷과' 청년작가 17일까지 공모

광주의 구도심 대인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김넷과'가 처음으로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인체, 평면, 영상 등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쳐 장르 구분없이 40세 미만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을 초빙, 작가를 선정할 계획중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작품이 미지 10점 내외와 작가노트, 작품 설명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이메일(ymap83@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종 선정된 6명의 청년작가에게는 2019년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리플렛 제작 등 제한 사할을 지원하며 우수 작품은 김넷과에서 직접 매입해 소장할 예정이다.

김넷과 후원회장 박현택 영무토건 대표는 올해 처음 신설된 김넷과 청년작가 공모는 향후 지역 청년작가 지원과 발굴에 힘쓰는 동시에 시각예술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합합 등 음악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229-335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김지현 '시산맥 서정시선'으로 '선홍빛 서사' 펴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위압 수술과 고독, 나 자신과의 싸움 등으로 시에 목을 적시며 살아온 것 같다. 절망의 끝을 딛고 일어서는 시, 세상에 맞서 희망을 노래하는 시를 쓰고 싶었다. 나의 시나의 노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글을 쓰고 싶어서, 시가 좋아서 끊임없이 작품을 쓰는 이들이 있다. 시가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시는 오래도

록 함께 가야 할 다정한 벗과도 같다. '시산맥 서정시선'으로 발간된 김지현 시집 '선홍빛 서사'는 그동안 묵묵히 감내하며 이뤄낸 결실이다. 모두 60여 편의 시편들은 일상에서 건져 올린 서정의 언어로 갈무리돼 있다.

시집 제목 '선홍빛 서사'가 상징하듯 작품에는 아픔과 상처, 고통과 절망 등이 배면에 드리워져 있어 묵직한 울림을 준다. "동백인지 춘백인지 붉은 삼월을 온통



내던졌네!// 바다가 보이는 언덕, 바람 속에서/ 목이 잠긴 꽃봉오리// 사랑이어서, 진정 사랑이어서/ 목숨 줄 끊어 떠나가나// 길 건너, 한길 건너에서 다시 커지는 등불/ 임가신 그 길에 누우니 하늘을 나는 발이 사라다/ 연을 끊는다는 게 세상을 등진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인가"( '선홍빛 서사' 중)

화자는 '선홍빛 서사'에서 동백꽃을 보며 떠나버린 임을 떠올린다. '연'을 끊어버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떨어지는 동백꽃으로 치환된다.

해설을 쓴 오봉욱 시인(서울디지털대 교수)은 "그의 연시들은 눈물과 그리움의 이중주라 할 수 있다. 다 듣고 나면 가슴 한 편이 아려오고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김지현 시인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숭의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 캐나다한국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메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IPALG 초등학교 맞춤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을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